

◆張慶弼(호원)(民自)지년 84년
부터 연 4년씩 임명한다 구도의 세금
이 초과될수록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만이 불로 되고 있다.

연화대 반이양。
내년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할 예정
의는. 농촌 의료보장료 인상률
한자리수로 다시 조정하라

유지

◇洪基의원(平民) 〓 정부는 91
 년도 예산안을 세출할위내의 균형
 예산이라고 감명할 수 있는가. 현
 재의 통화증가율을 감안할 때 91년
 도 팽창예산이 통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물가가 과연 한자리
 수자로 잡힐 수 있다고 보는가. 對
 日 무역적자의 해소방안을 밝혔다.
 韓蘇경제협력과 관련 국회사내
 對북반경제협력기구를 설치할 용
 의는.

議政중계

24일 본會議

◇崔戊龍의원氏自 158대
 치는 정부와 더불어 부흥신 김재매각조
 기는 정부의 실패집단에게로 넘어
 가면서 그 빛깔이 퇴색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까지의 진행과
 결과 결과를 소삼히 밝혀라. 수일
 에 알맞는 주태규보별로 전기 수도.
 해서는 주태규보별로 전기 수도.
 동시기가 소요금 등을 차등 적용하고
 통일가우이라 할지라도 임대주와
 세입자에게 차등 적용하는 제도의
 도입이 갈수록 높아진다.

◇朴英淑의원(平民)법정의의 전쟁선포후 구속된 노동자·농민·학생수자를 밝혔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시위를 감안해 환경감사원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한 견해는 현재 마련 중인 해발전소 추가건설계획과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을 밝혔다.

八堂산수원의 골재채취를 당장 중지할 용의는 있는가.

내년도 예산은 정부예산의 38%에 불과하다. 문화부장관은 이

2重

정부의 지방의회 여성참여방안
을 밝혔다. 민간탁아소에 대한 폐
쇄조치를 철회하라. 대졸여성취
고 교육과정개편의 기준은 무엇이

「2重穀價制」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

며 현재 일본정부로부터 되어 있는
초충·고모를 개항을 위한 무관부
장하의 불응이.

北韓화살성암지의 법전근거와
한민족과를 자교회를 추진해
한민족의 진도 있고 일부 국가
대해 살상성조 또는 현물차관제
등을 검토한다 있었다. 그러나

우리 TV의 北驍로프랩핑의 법칙은거는

정숙의 '심정전환'이 기원과 근원

◇姜英勳(姜二)부총리 6共의 「안

57년 세계식량농업기구의 결정에

따라 쌀 수출국 등 이해관계국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국제관행이

여농사들을 타국에 제정하는 것은



朴英淑의원



林仁奎의원

보인다.

중소기업보호확실행을 위해 고용
인센티브문제를 확대지정토록 하겠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금보
혜를 주는 방안과 주택차세우선전
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爐邊逸走자부잔판 - 페르시아
灣사태가 4개월이 되도록 해결이
불투명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계
속중이다. 그러나 유류과소비현
상인 신흥돼비산업부분의 유가인
상도 불가피하다.

별치○유는 주요산업 47%과
발전용(28%)으로, 총유는 버스철
도 등 대중교통비(57%)와 산업

[illegible]

자출치비율을 정해준 것은 신정환 회장이 따른 것이었다. 한정환을 지금도 1천여원이요 하정환을 500원으로, 주주들은 본인의 동의를 거쳐 출자액을 축소시켰다. 김발장은 신정환을 지난 10월 10일 마가한뒤 심사기준을 10월 18일 발표할 것이 시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타당했다. 그러나 환선 이준부만 언론에 나가 구체적 심사기준을 이야기하며 심사기준이 늦게 나와 이익을 망했다고 주장한 뒤 줄스기(협동조합원)의 기록과 방송에 대해서 는 사전에 충분히 민방 지배주주로서 타당치 않다는 설명을 했다. 이후

3개 업체 사장과 직접 면담한 후 汝矣島의 6천여명의 건물주를 모두한 泰樂이 새 민방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인 시각에서 영남증권제와 광진, 일부 92년 總選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도 일리는 있다. 다만 그런 정치적 시각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위생뿐만 아니라 HDTV, HDTV, 위성방송의 비핵화와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올해 말 민방을 완전히 이룰 TV를 시작하고 이 각각의 민방에 각각의 KBS처럼

노령手當 지급·농어촌醫保料인하를

北韓과物資교역추진·「목은쌀」해소方案은뭔가

중소기업·근로자·병역특혜 부여 검토

民放 92년 總選
言論 同等 重要 無關



張慶宇의원



洪英基의원



崔戊龍의원

자들에게 용돈까지 숨기지 못해 각종 경제유리의 부작용을 낳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계층간의 불균형을 낳았고 국민연금의 폭발력을 잃었다. 노사분규가 빈발해졌

있고 우무과이란은 현실에서 우리가를 수입개발할수 없는예의품목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주장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할수 있다.

물 22%으로, LpG는 가정용사
(52%)와 택시연료(38%)로 L
G는 발전용(76%)으로 주로 사용
되므로,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
인식치 영향을 발생시킨다.

다. 정부에서는 어따나 都農간 격차 해소, 산업연계 정책 策의 分배 촉진, 경제력 집중 완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策을 통해 農민의 生活을 회복토록 노력하고 있다.

제수업을 희생시키기 위해 특별

○鄭永義씨 주장 전 ○현재의 조세 부담율은 19% 정도로는 볼지수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구조 개선, 발암유기, 지방재정확충 등 현 실연건들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본다.

◆金鎮炫과함기술저장관 金과함 기술을 자신들을 위해 각종 구조제 원재료를 확대해 나가겠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기술개발은 비금속 복합도를 2배로 상향조정하고 기술 및 인력세액공제를 현행 10%를

설비자금과 외화대출의 확대, 임시
세액 공제제도 확충, 첨단 및 자
화설비감가상각 등 금융 세제지원
을 계속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3천
백여원규모의 교육환경개선특별

《東萊檀君실상신정판》 93면부
터 2종교사제도를 따지한다는說
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다소의
정부재정부담이 있어라도 2종교
가제는 상당기간 더 계속될 것이
다.古來를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5%로 늘려졌다.

◇安應模내무장관 ㉠범죄와의 전쟁선포후 범죄발생은 13.7% 감소하고 검거율은 15% 증가하는데 범죄부위가 위축되고 있다. 연내의 전쟁범죄와 행정범죄를 투입, 장·료법과 유해업소 단속을 집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자치 제 실시야 따라 지역주민들의 교육 관련 비용부담을 늘리겠다.

◆李承淵부총리「인공조과제와 을 해결하기 위해 蘇聯·北韓 등 식

◆朴榮秀(榮秀)장관「對日 무역자 자의 가장 큰 요인은 설비투자용 기계·부품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 산화석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당분간 對日 전자는 계속될 것으로

중심으로 실시해 범죄예방 및 검거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

◇李種南(李正南)장관=북한영화는 자유세계의 영화와는 달리 체제유지 및 혁명사상 고취수단이기 때문

3개 업체 사장과 직접 면담한 후 4대총회의 6천여명의 의원을 보충한 채 1992년 1월 1일부터 방송을 개시했다. 정치권 시그널로 보며 대안당을 언급한 채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92년總選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대안당은 그런 정치적 의의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다. 민방을 이끈다는 이름이 HDTV 위성방송과의 비핵연락 준비를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올해 말에야 대안당이 이렇듯 TV를 시작하고 이어서 각각 장 민방을 시작하면서 KBS중국의 HDTV 개발을 틀어잡았다.

80년 인텔로제할라 관련 연재 소설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이력 재판이 아직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이 한낱 전보로 행할 것이었다. 그러나 새 민방이 출범 6개월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이력 소송과 관련이 없다. 방송의南北 관련 규약 관련 민의가 관련자만 아니라 시스텔이 팔라 문제가 있다 라고도 지적한 것이다. 대안당이 92년 北韓방송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崔太煥·具本永기자〉

〈崔太煥。具本永기자〉